



[동방박사 예물 봉헌] 6세기. 모자이크 산아폴리나레누오보성당 라베나 이탈리아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michaelkofm@gmail.com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특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ohanleo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 2, 1-5

[화답송]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후렴) 주 - 님, 세 - 상 모 - 든 민족들 이 당신을 경배 하리 이 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제2독서] 에페 3,2.3 L. 5-6

[복음환호송] 마태 2,2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마태 2,1-12

[성가안내]

- 입당성가 [484] 기쁘다 구주 오셨네
- 봉헌성가 [487] 동방의 세 박사
- 성체성가 [110] 경사롭다
- 파견성가 [101]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

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

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

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 영미사

-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 이영우, 이태묘
- 김영복 아네스
- 김창진
- 김영우 요셉, 강견대 마리아 부부
- 정현술
- 박태경
- James M. Hunt, Miekh Rosario
- 민병택 베드로
- 김용각
- 장석은 요셉

봉헌

- 양미숙 마리아
- 이상홍 스테파노
- 연령회, 양사비나
- 김영숙 카타리나
- 김지영 유스티나
- 윤 루시아
- 박 순 로사
- 김경련 울리다
- 경 가밀라
- 박명심 모니카
- 장철순 스테파노

● 생미사

- 이지영 엘리사벳
- 박수정 크리스티나, 박수진 줄리아
- 박종성 박제송 가정
- 양세안 가정
- 양미숙 마리아의 대녀들 가정
- 박연희
- 이지연 안나레지나
- Anne Kim
- 전마지 마가렛
- Simon Redham, James Heimer
- Karin Grasso, Susan Carson
- 이병국 요한 가정
-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가정
- 모든 연령회 회원들
- 강종윤

- 이기원 스테파노
- 양미숙 마리아
- 양미숙 마리아
- 양미숙 마리아
- 양미숙 마리아
- 박 순 로사
- 이영애, 이지훈
- 김영빈 루시아
- 경 프란치스코
- 익명
- 익명
- 이병국 요한
- 이병국 요한
- 연령회
- 강혜숙 바울라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1월 5일	채봉석 그레고리	김종화 필립보	김혜원 알비나	서인철 레오비노	이경자 벨라렛다	최지연 김범석	신혜정 김하나	김종선 박민재 김지영 이영혜 박기목 이경숙 안선정 강호영
1월 12일	권순재 요한레오나르도	안상민 그레고리오	오진화 정혜엘리사벳	황세유 루카스	김민희 세레나	민덕미 양미숙	임유진 황예슬	김성중 이규완 이경자(울) 김효진 이은경 신윤길 신애송 윤숙자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두 번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래 성당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세례	사무실 : 347-834-5784

[복음 묵상]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었다”

일상의 사사로움 안에서 당신은 부르셨습니다.
 목마른 여인이 물을 길으러 나갔다가
 우물가에 앉아계신 당신을 만났듯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그물을 손질하다가
 당신의 초대를 받은 어부들같이
 날마다 밤하늘에 뿌려진 무수한 별들을 보다가
 당신의 별을 보았습니다.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는데
 시돈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하셨고,
 또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에 나병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하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 업적을 바라보며 걸모양에 빠진 사람,
 오만 가지를 연구하느라 바쁜 사람,
 저희처럼 당신을 모르면서 당신 업적을 바라보는 사람.....

당신 백성은,
 당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부럽던 그들은
 성경에 정통하였지만 받은 талан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발에 묻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적대감으로, 백성은 이상스런 기대감으로
 당신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인 척,
 진실하게 예배하는 이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었습니까?
 저희를 부르시었습니까?
 동방에 솟아오른 별을 보고 서둘러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 앞에 와 경배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 58th 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 Sun: 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한방병원
 290 MADISON AVE FL6 NY,
 NY10017 (b/t 40&41st)
 212.203.0072 (문자가능)
 예약/문의 카톡ID: nycacu

항공 및 관광 전문
올림피아여행사
 박로사
 1270 Broadway(32,33가 사이) #603
 www.olympiatourusa.com
 ☎ 212-695-6699

광고주를 찾습니다


[성경구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이유 :

사제 서품을 받을 때, 평생을 기억하고 또 기준으로 삶을 성경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 역시 사제 서품을 준비하며, 앞으로 사제로서의 삶에 기준이 될 성경구절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라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수도원에 입회를 한 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수도자는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 있기도 했고, 사제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사랑’과 관련된 성경구절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라는 성경구절은, 어쩌면 제가 사제로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 기준이자 동시에 과제와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성경구절은 저의 사제 생활을 돌아보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부분은, 과연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구나’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삶 하나하나가 사랑이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자비로웠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인자로웠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인내로웠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조건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억울함을 잘 견디어 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훌륭한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시간과 에너지를 다해 어려운 신자분들을 만나고 위로하였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실제의 삶 안에서 내가 강론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에서 늘 걸려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어려운, 버거운 성경 말씀을 선택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사랑”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예수님께 사랑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에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바탕에는, ‘나의 부족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자비하심, 용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자분들은 저를 ‘사제’라 부르고, 저 역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제로서 시작할 때 저에게 주셨던 그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야겠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나를 먼저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그 사랑을 먼저 떠올리는 자신이 되도록 좋으신 그분의 은총을 청합니다.



[축하합니다]
♡2019년 ‘레지오주회 1년 개근’ 정다경(마리아)

♡2019년 ‘일년일독 성경통독’ 강혜숙(바울라) 김도경(헬레스티나) 김보현(엘리사벳) 김영빈(루시아) 김영숙(카타리나) 김영옥(세실리아) 김창영(비안네) 배인순(아가다) 유정옥(유스티나) 이경자(율리안나) 이정자(제시카) 임금중(마가렛) 조남록(미카엘) 조성자(데레사)

[기도해주세요]
♡병중에 계신 분 김화자(소화데레사) 정인해(예로니모) 김순환(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김동희(헬레나) 정희자(리드비나)

♡교도소에 계신 분 김관형(프란치스코) 차정환(바오로) 박 일

[감사합니다]
♡ 2단 우산 3박스 도네이션 진홍섭(오도) · 진봉숙(소화데레사)

♡1/1 떡국 봉사 미스코리아 더큰집 원조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전입하신 분, 환영합니다!
: 다미아노 홀(성당 밖 좌측 20m)

[오늘의 이벤트]

- **울뜨레야** : 11시, 교육관 4호실
- **학부모회** : 11시, 교육관 3호실
-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1.1 성모마리아 1.2 바실리오, 그레고리오
- 1.4 엘리사벳 시튼 1.5 신클레티카
- 1.17 안토니오 1.20 파비아노, 세바스티아노
- 1.21 아네스 1.24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1.26 티모테오, 티토 1.27 안젤라
- 1.28 토마스 아퀴나스 1.31 요한 보스코

[다가오는 행사]

찬양·치유 미사

- 일시 : 1.12(주일) 5pm(매월 둘째주일)
1.26(주일) 5pm (뉴저지 주최)
- 장소 : 가톨릭 센터 / 준비물 : 없음
- 주최 :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뉴저지 지구

울뜨레야 신년교례회-데 콜로레스!

- 일시 : 2020.1.12(주일) 4pm(미사와 만찬)
- 장소 : 마돈나 성당
(340 Main St. Fort Lee, NJ)
- 티켓 : 20불 • 문의 : 울뜨레야 간사
동북부 울뜨레야 사무국이 주관하는 '신년
교례회'가 본당 꾸르실료스타와 신자들을
모십니다. 사랑, 이상, 순종으로 주님께 찬
미와 감사를 드리며 울뜨레야 가족의 친교
와 사랑을 나눕니다.

FYNY 스키캠프

- 청년회에서 스키캠프를 마련했습니다.
하루 종일 스키를 타고 즐거운 추억도 남기
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교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새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소 : Belleayre Mountain Ski Center
 - 일정 : 1.17(금,8pm출발)~19(주일,4pm도착)
 - 참가비 : \$250
(숙소/음식+리프트+스키/보드렌탈)
\$ 215(숙소/음식+리프트)
\$ 170(숙소/음식)
 - 문의 : 유대건 미카엘 631.655.1733
cloudryu123@gmail.com /
Kakao카톡: cloudryu123

[모집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를 보내주세요.

잔잔한 일상에 가슴을 뛰게 하거나,
우울한 날, 지친 날에 삶을 다독이던,
여러분에게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였던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울림을 공유하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원고의 분량 : letter 사이즈 1장 이내.
(글씨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한국학교, 주일학교 교사

- 한국학교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917.887.5040)
- 주일학교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청년 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 문의 : 정동혁 미카엘(카톡 : cdh306)

1월 성경 공부

수요일 휴강		
주일 (5.12.19)	오후 1:30~2:50	코리안 컨퍼런스룸

미동북부 청년 레지오마리에 신년회

- 대상 :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레지오에 관심있는 21세 이상 신자
- 일시 및 장소 : 1.18(토4-8Pm), 가톨릭회관
- 지도신부 : 김영민 미카엘
- 참가비 : \$15 • 문의 : 꾸리아 단장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1,950 오인희 김보현 이경자(울) 장혜숙 김행자 고은경 강호영 황경숙 김지현
감사헌금	\$ 700 박승남 이해순 강혜숙
합 계	\$ 2,650

❖ 꽃봉헌 : \$ 0

설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 1.26(주일) 9시 15분, 윗 성당
- 신청 : 친교실 안내데스크(연령회 담당)
- 마감 : 1.19(주일)
- ☺ 이름을 바르게 써 주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설 명절 행사

- 일시 및 장소 : 1.26미사 후~1Pm, 친교실
- 일정 : 1)공동체 어르신들께 세배예절
2)전통놀이(요셉회 주관)
-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이날의 모든 단체별 모임은 설 행사로
대체됩니다.

성경 통독을 합시다~

본당에서는 '성경통독표'를 통해 성경을
일 년 일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매일 와 닿은 말씀을 노트에 적으면서
성경말씀을 새기는 감동, 맛보시길
기대합니다.

☆ 2020년도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주세요.